



연극 '짬뽕'

전남에 스며드는 80년 5월 광주정신

전남문화재단 기획공연

'짬뽕'·'봄날'·'오월' 등

10일부터 남도소리울림터

전남문화재단이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이해 남도소리울림터에서 기획공연을 연다.

극단 산의연극 '짬뽕' 공연을 시작으로 전남 도립극단의 오라토리오 집체극 '봄날', 홍성담 화가·토다밴드가 참여하는 노래극 '오월'이 관객들을 찾아가는 등

10일 오후 7시에 공연하는 극단 산의 레파토리 연극 '짬뽕'은 2004년 초연 이후 18년 동안 매년 무대에 오르며 흥행성과 작품성을 인정받은 대한민국 장수 연극이다.

대한민국의 아픈 역사인 1980년 5월 광주를 배경으로 5·18 계엄 상황이 짬뽕 한 그릇 때문에 벌어졌다고 믿는 중국집 '춘래원' 식구들의 이야기를 그린 블랙코미디다. 공연시간은 100분이며, 12세 이상 관람 가능하다.

20일 오후 4시에 공연하는 전남도립극단의 오라토리오 집체극 '봄날'은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아 전남도립극단이 기획·제작한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평화와 깎지 손'이라는 주제로 '봄날'의 하이라이트 부분을 갈라콘서트 형식으로 무대에 올린다. 오라토리오 집체극에 쓰인 무용작품을 단독 무용극으로 새롭게 재창작한 무용극 '봄날'도 함께 선보인다.

또한, '바위섬', '직녀에게'로 널리 알려진 가수 김원중과 전남도립극단 기악부의 협연 무대도 마련됐다.

공연시간은 80분이며, 전체 관람 가능하다. 24일 오후 7시 공연하는 노래극 '오월'은 민중화가 홍성담의 연작판화 '5·18-새벽'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다.

첫 번째 프로그램 샌드아트 '아무도 몰라'는 화가 홍성담의 오월판화 중 목판화 '암매장'에서 영감을 받아 홍성담의 시에 노래곡으로 창작한 샌드애니메이션 영상 작품이다. 샌드아트로 화가 주홍이 참여했다.

두 번째 프로그램 '운동화비행기' 애니메이션은 1980년 5월 광주에서 목숨을 잃은 두 소년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한 홍성담 화가의 그림책에서 영감을 받은 영상작품이다.

애니메이션 '운동화비행기'는 전 세계 국제영화제에 출품해 현재 70여개의 영화제에서 최우수 애니메이션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상영시간은 16분이다.

세 번째 프로그램은 홍성담의 연작판화 '5·18-새벽'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한 곡을 토다밴드의 연주로 감상한다.

토다밴드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환경문제 등 사회에 울림을 주는 주제를 창작하고 연주하는 부산의 퓨전 록밴드이며, 이번 작품은 광주·전남에서 초연으로 공연된다. 공연시간은 90분이며, 전체 관람 가능하다.

관람신청은 남도소리울림터 홈페이지(<http://namdosori.or.kr>)를 통해 예약 가능하며, 전석 무료다.

전남문화재단 관계자는 "한국 현대사에서 잊어서는 안 될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기획공연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대중적이고 의미 있는 공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민에게 다양한 장르의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광주문예회관 '이중섭, 도쿄로 보낸 편지' 공연

30일 오전 11시 소극장

'오빠 생각' 등 9곡 연주

광주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올댓 러브3'가 오는 30일 오전 11시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회관 리모델링을 마치고 오는 6월 정식 개관에 앞서 처음으로 시민들에게 소극장을 개방하는 시범 공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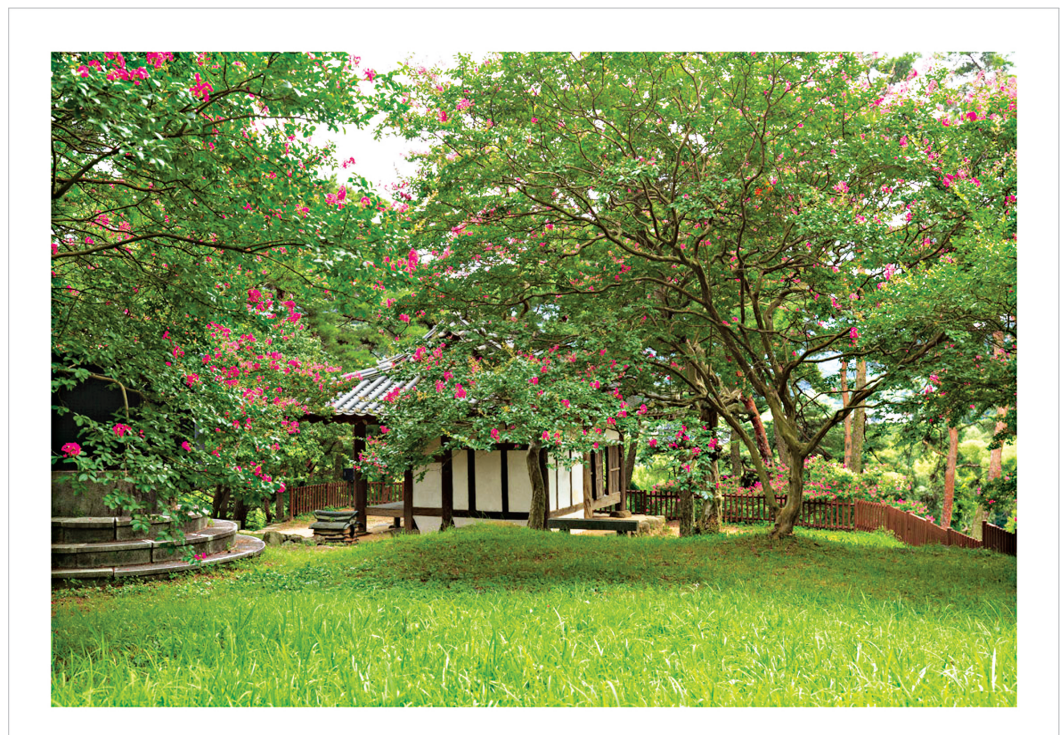
가정의 달 5월 공연의 주제는 '이중섭, 도쿄로 보낸 편지'다. 가족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과 예술에 대한 열정의 화가 이중섭을 만나본다.

일본인 아내와의 연애와 결혼, 한국전쟁으로 피난했던 부산과 서귀포 생활, 가난 때문에 생

이별한 가족들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 등 오직 가족과 예술밖에 몰랐던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해설과 영상을 통해 그의 대표작들을 만나보고, 음악을 통해 격동의 시대와 가족에 대한 사랑을 공감해 보는 시간을 마련한다.

콘서트 가이드 김이근이 해설하고, 바리톤 박상훈과 클래식 기타 안형수, 첼로 최예나, 아코디언 박상민이 '오빠 생각', '열굴', '보리밭', '군세어라 금순아', '세월이 가면' 등 총 9곡을 연주한다.

관람료는 전석 1만원이며, 관람권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및 티켓링크(1588-7890)에서 하면 된다. 유료 회원 선예매는 9일 오전 11시, 일반회원은 같은 날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예매 가능하다. /이나라 기자



우명석 '식영정21-여름'

우명석 사진전 '영산강이 품은 누정'

17일까지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우명석 사진전 '영산강이 품은 누정'전이 오는 17일까지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3관에서 열린다. 작가가 사진을 공부하며 작업해 온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영산강의 사계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전시다.

작품은 주로 누정(樓亭·정자와 누각을 함께 일컫는 말)의 풍경을 담아낸다.

정자는 주변 경관을 보며 심신의 휴식을 얻기 위한 기능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려는 정신적 기능이 강조되고, 누각은 많은 사람이 함께 사용하는 곳으로 풍류, 교육, 공공의식 등 복합적

기능을 겸하도록 구성돼 있다. 작품은 이런 정신적인 수양의 순기능이 있는 정자들을 주로 담았다.

우명석 작가는 "서남부를 흐르는 영산강은 예로부터 남도사람들의 희로애락이 담겨있는 곳이다. 일찍이 이곳에서 국가가 생겨나기도 하고 외세의 침략으로 국가가 멸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산강은 남도사람들에게는 풍요를 상징하는 어머니의 젖줄이면서 수탈의 통로이기도 하다. 나의 작품은 영산강을 발판 삼아 살아왔던 영산강이 바라보이는 곳에 누정을 사진에 담아내고 기록한다"고 밝혔다.

/최진화 기자



문화 브리핑

◇어린이기획전 '소울메이트&'=31일까지 중앙미술관

◇이두환 개인전 '관계와 인식 그리고 내면의 투영'=8-19일 자미갤러리(오전 9시-오후 6시, 일·공휴일 휴관)

◇튀르키예를 위한 콘서트=8일 오후 7시 30분 금호아트홀

◇자연을 그리다=8-19일 일곡갤러리(오전 9시-오후 6시, 1·3주 휴관)

◇5·18특별기획전-별이 된 자들을 기리며=10-20일 비움박물관(오전 10시-오후 6시, 월 휴관)

◇이경은 개인전=10-21일 빛고을공예창작촌 빛결 갤러리(오전 10시-오후 6시, 월 휴관)

◇제14회 광주국제음악제=10-11일 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광주신세계미술제 수상작가 초대전-이정기 '미필적 고의'=11-31일 광주신세계 갤러리(오전 10시-오후 6시)

◇광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Ⅱ '가족'=11일 오후 7시30분 광주북구문화센터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집=13-14일 오전 11시-오후 3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극장

전남대박물관 초대전

홍원표 작가 '꿈' 전시

26일까지 대학역사관

전남대학교박물관은 홍원표 작가 초대전 '꿈(Dream)'을 오는 26일까지 대학역사관 2층 기획전시실에서 개최한다.

홍원표 작가는 꿈은 욕망이나 욕구와 비슷해 끊임없이 소유욕을 유발하고, 누구나 제각기 각양각색의 '꿈'을 소유하거나 지향하며 살아간다고 말한다. 이에 작가는 마치 저마다 서로 다른 '꿈'의 보따리를 갖고 태어나 자신의 욕망, 욕구를 채워나가는 작품에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표현하고자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불확실한 작가 삶의 여정길과 현실적인 여행을 동경하는 내용을 그린 작품 18점을 선보인다. 이정표 모양의 보따리형식으로 보이기도 하고 시각장애인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사진, 퍼포먼스 작업들, 커다란 호수머니 형식의 설치작업과 원시적인 집의 형태를 빌어 모델링작업을 보여준다.

정금희 박물관장은 "우리가 바쁜 삶 속에서 잊고 있던, 혹은 미뤄두고 있던 꿈은 없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고, 파스한 봄날 훌쩍 떠나보듯이 내 안의 꿈의 세계와 마주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진화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1000@hanmail.net